



© 참여연대

05 반전

군사화된 사회에서 반군사주의자 되기

: 병역거부 선언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가짜 신화다. 한국사회는 강한 군사력에 대한 열망만큼 사회 곳곳에 군사주의 문화를 깊이 새겼다.

군사화된 한국 사회의 탄생

한국은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들 가운데서도 징집률이 매우 높은 나라지만 “꼭 가고 싶습니다”고 외치는 청년은 박카스 광고에서만 존재할 뿐이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가짜 신화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군대를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가야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간다. 아직 국가권력이 촌촌하게 작동하지 않았던 1950년대에는 ‘병역기피’가 일상이었다.

이런 세태를 반영하듯이 1950년대 한국 소설에는 병역기피를 공공연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인물들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1955년 『서울신문』에 연재된 염상섭의 소설

『젊은 세대』의 등장인물들이 대표적이다. 소설 속 인물들은 미국 유학, 이중 호적, 가 호적 등의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할 방법을 모색한다. 병역기피가 어찌나 심각했는지 한국 정부는 1957년 병역법을 개정했다. 당시 호적을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 하루에 100명에 달했고, 1957년부터 3년 동안 경북지역에서만 5,600명이 병역기피로 고발당했다 한다.(허윤, <http://www.withoutwar.org/?p=148770>)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였고, 전쟁이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이랬으니, 국방의 의무가 진짜로 신성했던 적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다. 일제시대 식민 지배를 겪으며 직간접적으로 태평양전쟁에 휘말렸고, 해방 직후 한국전쟁으로 온 나라가 초토화되었으며, 그 뒤에는 냉전 시대의 최전두에서 북한과 크고 작은 군사 갈등을 겪어왔기 때문에 한국사회는 강한 군사력에 대한 열망이 강했다. 군사력에 대한 열망은 때로는 국가주의와 결합해, 때로는 경제 발전 논리와 함께 사회 곳곳에 군사주의 문화를 깊이 새겼다.

예비군 제도가 창설되고, 교련 수업이 강화되었으며, 기업에서도 군대식 위계 구조나 상명 하복 문화가 낫설지 않게 되었다. 이토록 군사화된 사회에서는 진보진영조차도 군사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반독재 투쟁이 활발했던 1980년대에 군사독재정권의 군대를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이 존재하지 않은 점은 매우 상징적이다. 저항 폭력에 대해 무자비한 공권력에 맞서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폭력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성찰이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분명하다. 폭력과 권력이 작동하는 데 군사주의가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가부장제와는 어떻게 결합하고 서로를 강화시키는지 돌아보지 못했다. 민주화운동을 하는 이들조차도 ‘강한 국가’가 평화를 지키는 힘의 원천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점에서는 군사독재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 사회에서 군대를 비판하는 행위는 적을 이롭게 하는 빨갱이가 되는 일이었고, 군대를 기피하는 행위는 욕을 먹어 마땅한 일이었을 뿐이다. 군대를 거부하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다. 여호와의증인의 경우에는 병역거부보다는 집총 거부로 인식되고 있었고, 무엇보다 특정 종교인들의 독특한 행동일 뿐 사회적인 의미를 부여받지는 않았다.

오태양의 병역거부 소견서

사회봉사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픈 어느 젊은이의 기록

2001년 12월 17일 '종교적 신념과 평화·봉사의 인생관'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지 꼬박 넉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듯 싶습니다. (중략)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비폭력적 삶의 지향

병역거부 문제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집중을 비롯한 군사훈련은 추상적인 논리가 아닌 매우 구체적인 현실과 상황으로서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저는 제 군생활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사람모양의 사격판을 향해 얼굴과 심장을 정조준하여 방아쇠를 당긴다는 것, '떨러 총! 베어 총!'을 외치며 불특정 대상을 향해 총검술을 익힌다는 것, 더 많은 사람들을 더 효율적으로 살상할 수 있도록 수류탄을 조작하고 투척하는 연습하는 저의 모습이 몇날 몇일을 제 머릿속에서 유행처럼 맴돌았습니다. 각종 군사훈련이 직접적인 살상행위는 아닐지언정 살심(殺心)을 유발하는 행위임에는 분명하였습니다. 제가 진정 두려웠던 것은 극박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현되는 폭력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런 위기상황에서 직·간접적 폭력행위가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유발되도록 설새 없이 주입받고 훈련받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불특정다수를 대상화하여 총과 칼을 휘둘러야 하는 행위는 그 목적과 방법, 모든 면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군사훈련을 이행할 수 없는 전투불능자이자 군인으로서의 하등 쓸모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제게 군사훈련의 위험성은 그것이 외부의 명령과 강제적 규율에 따라 살상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일상화·내면화·자기정당화'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그 과정을 통해 형성된 살심(殺心)은 제 의식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음으로 해서, 언젠가는 불특정한 대상과 예측불가능한 상황에서 자기통제력을 넘어서는 행위로 어떻게든 표출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과 훈련의 기능일테니까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낡은 역사적 명제 앞에서, 제가 선택한 것은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준비하라'는 새로운 관점과 접근이라고 하겠습니다. 폭력적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력행위를 연습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자신은 물론 상대방마저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비폭력의 훈련과 체화'야말로 궁극적 평화를 달성할 수 있으며, '폭력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현재적인 종교적 믿음이자 가치관입니다. 그것은 제 삶의 모델인 부처님의 가르침이자 삶의 방식이었고, 대학시절 인류의 평화문제를 연구하던 끝에 내린 일단의 결론이었으며, 여호와의 증인들을 비롯한 전세계 병역거부자들의 유구한 전통과 존재자체가 일깨워준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에게 있어서 '비폭력적 삶과 사회발전'의 실현은 단지 군사훈련 거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식과 한끼급식, 명상과 사회봉사 등의 일상적 실천을 통해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닦아나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개인으로서든 사회로서든 '평화의 실현'은 이론적 체계나 짜임새있는 언변으로써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실천과 교육이 병행되어 질 때 비로소 완성되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게 있어 병역거부는 진리와 평화를 추구하는 한 평범한 개인으로서의 이상을 실현해 가는 일련의 실험에 다름 아닙니다. (중략)

개인적 구제를 넘어 사회의 구원으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각 개인과 우리사회가 밖으로만 향해있던 시선들을 한번쯤 안으로 돌려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대다수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우리가 당연시 여겨왔던 '정당한 전쟁'과 '정당한 폭력'에 대해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평화를 원하지만, 그 평화로 가는 과정은 때론 폭력적이기도 하며, 이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자기정당성과 합리성을 획득합니다. 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가 그래왔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옹호하기에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되고 생활화 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판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다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자신의 청춘과 존재를 던져 이 사회에 이야기하고픈 것이 무엇인지 한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병역거부자들의 감옥행은 '평화와 폭력' '양심과 인권'이라는 인류의 오랜 화두에 대해 우리사회가 한번쯤 성찰해 보기를 염원하는 조금은 극단적인 '대화와 토론'의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비폭력적인 방식에 의한 삶과 사회변화'를 꿈꾸는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강자권 약자권, 가진 자이건 못 가진 자이건, 다수자이건 소수자이건 간에 염원하는 '목적으로서의 평화'를 '어떤 과정과 방식으로 실현해 갈 것인가'라는 문제야말로 우리 모두가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해결해 봄직한 인류사적 과제가 아닐까 합니다.

병역거부자와 군복무자의 공존과 연대

저는 입영을 거부하였지만,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거나 준비중인 대다수의 대한민국 젊은이들과 연대의식을 공유합니다. 많은 군복무 경험자들과 현역장병들이 저와 같은 병역거부자들에게 던지는 신랄한 비판과 매도에 대해서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자 노력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병역거부자와 군복무자의 공존이며, 싸움이 아니라 대화이며,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들을 이질화시키고 적대시하게 만드는 사회의식과 불합리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많은 젊은이들이 자발적 동기에 의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자신의 청춘과 의지와 능력이 2년이 넘는 군생활에 저당잡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들으며 안타까웠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분들도 밝히고 있듯이 왜 한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복무를 회피하려고 하며, 삶의 억압성을 호소하는 것인지 귀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3백여명의 군복무 사망자중 100여명이 자살자이며, 5천여명에 달하는 정신질환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직도 이들에게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 데 너는 왜 ...?!' 라며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으박지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까? 불가침의 성역이었던 군복무가 우리사회의 젊은이들에 있어 자기실현과 신성한 의무로서 인식되고 있는지, 진지하게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마치며

언젠가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로서 한국에 파견되어 해외대체복무를 하고 있다는 독일인 청년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를 볼 때 오랜 기

간 군복무를 해야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미안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제게 지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자신이 만약 한국에서 태어나 무거운 죄가를 치루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자신은 병역거부를 할 것이며, 그 신념은 언제 어디서고 변함없으며 후회없다’라는 진지하고 당당한 입장과 태도였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국가와 종교, 신념과 사상의 차이를 뛰어넘는 보편적인 인간행위이자 권리임을 그의 모습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한국의 젊은이들도 보다 열악한 국가에 파견되어 인권과 평화를 신장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는 날이 오겠지요. 그 날이 올 때까지 저에게 주어진 시간과 역량만큼 사회봉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탄양의 소견서는 분량상 전부를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전문보기 http://peacearchive.net/xs/s_3/1932

오탄양의 병역거부 선언, 군사화된 한국사회를 정조준하다

1997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6·15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등 외교 군사 분야에서 변화가 일긴 했지만 사회의 군사주의가 약화된 것은 아니었다. 김대중 정부의 탄생에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병역 문제는 이전보다 더 중요하고 민감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신자이자 평화운동가인 오탄양은 한국 최초로 공개적인 병역거부 선언을 했고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평화를 원한다면 강한 군사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선언한 것은 군사 안보의 본질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었고, 폭력 자체에 대한 성찰은 진보 진영조차도 자유롭지 못한 군사주의를 돌아보게 만들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낡은 역사적 명제 앞에서, 제가 선택한 것은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준비하라’는 새로운 관점과 접근이라고 하겠습니다. 폭력적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력행위를 연습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자신은 물론 상대방마저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비폭력의 훈련과 체화’야말로 궁극적 평화를 달성할 수 있으며, 폭력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현재적인 종교

적 믿음이자 가치관입니다. (전쟁없는세상, 2014, 15)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남자라면 모두가 군대에 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여기는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고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휴전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먼저 총을 내려놓자는 제안은 한국 사회의 전쟁에 대한 공포와 군사주의의 깊은 뿌리를 건드렸다. 게다가 오태양이 선언한 비폭력은 국가 폭력의 수단인 군대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개개인이 비폭력적인 가치로 일상에서의 삶을 일궈가는 실천을 말하는 것이었다. 군대나 경찰, 혹은 거대 기업의 사적인 폭력에 맞서 저항 폭력을 사용하는 데 익숙했던 당시 한국의 진보 운동에도 오태양의 선언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모든 폭력에 대한 성찰을 이야기했고, 그 중 가장 강력한 폭력인 군대를 공개적으로 거부한 최초의 선언이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선뜻 동의하기 어렵고 자칫 관념적이거나 이상주의적으로만 들릴 수 있는 주장이 사회적인 힘을 갖게 된 까닭은 오태양 스스로가 제 발로 감옥으로 걸어 들어갔기 때문이다. 여호와의증인들도 제 발로 감옥에 간 것은 똑같지만, 오태양의 병역거부 선언은 공개적으로 행해진 시민불복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잘못된 법과 제도를 일부러 어겨서 처벌받음으로써 그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시민불복종은 헨리 데이빗 소로우부터 간디와 마틴 루터 킹으로 이어지는 비폭력 저항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익숙한 방식이 아니었다. 감옥행이라는 불이익을 감내하는 모습 덕분에 시민불복종으로서 병역거부는 비폭력 평화주의와 매우 잘 맞는 방법이었다. 오태양의 병역거부 선언 이후, 병역거부 운동뿐만 아니라 평화운동 전반에서 시민불복종을 중요한 직접행동 방법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한편 오태양의 병역거부 선언은 군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영대상자들에게 열어주었다. 병역거부가 특정 종교인

들만의 신앙적 행동이 아니라, 전쟁 반대와 평화주의, 비폭력 같은 정치적인 신념 또한 병역거부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오태양의 병역거부 선언 이후 비폭력과 평화주의, 반군사주의 같은 신념을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고, 그들 중 몇 명은 입영영장이 나오자 오태양처럼 병역거부를 선언하게 되었다.

강철민의 병역거부 소견서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이등병의 편지

대구 산골의 촌놈으로 태어나 산이고 들이고 동네 산 천지를 뛰어다니며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으며 돌아다니던 저를 보시고 동네 어르신들이 옥수골 타잔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옥수골 타잔 생각만 해도 우스꽝스러운 별명입니다. 옥수골 타잔으로 불리던 제가 나이가 차서 어련히 가야한다는 군대라는 곳에 할줄 아는 것이라고는 그나마 운전밖에 없어 운전병으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여름의 길쭉한 태양과 걸쭉한 소낙비를 맞으며 군사 훈련을 끝내고 또한 운전 훈련을 끝내고 전라도 장성에 있는 상무대라는 곳으로 자대를 배치 받았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군대라는 곳에 입대한 제가 이렇게 대통령님께 편지를 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통령님께 편지를 쓰는 까닭은 이등병인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라크 파병이라는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물론 대통령님께서도 적지 않은 고민에서 그러한 결정을 내리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판단은 우리 군대의 장교는 물론이고 사병들까지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인으로써 그러한 죽음을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무런 명분도 도덕도 없는 제2의 베트남전에 우리의 군대가 파병되어 이라크 국민을 죽이고 또한 죽어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군대에 갔다 오신지라 침략전쟁에 반대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우리 군의 역할을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국의 군대가 자국의 국토와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는 것 이외에 침략전쟁의 도구로 쓰여 진다면 그것은 이등병인 제가 아니라 어느 누가 보아도 틀린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배우고 익혀야할 군인인 제가 이렇게 군에 관한 문제를 조심스럽게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님께 이야기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라크 파병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자주국방의 원칙에 맞게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입니다.

어제는 이러한 저의 생각을 가족들과 마주앉아 이야기했습니다. 한 마디 한 마디 말씀드릴 때마다 걱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시는 부모님의 눈동자가 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파병 결정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자식 잃은 모든 부모님의 눈동자가 저의 가슴을 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고민이 느껴지셨는지 나중에는 부모님도 저의 의견에 더 이상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준 저의 동생의 말 한마디가 저에게 많은 힘이 되 주었습니다. 저는 참 불효자입니다.

저는 이라크전쟁 파병을 반대합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분들 또한 저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아직 군 생활이 많이 남은 한국군의 일원으로써 침략 전쟁인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며 이러한 상황이 파병 철회로 바뀔 때 까지 수없이 고민한 농성을 시작할까합니다.

갑자기 추워진 겨울 모든 분들의 건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2003. 11. 21. 강철민

강철민과 이길준, 현역 군인의 병역거부 선언

오태양의 병역거부 선언 이후 등장한 병역거부자들 대부분은 모든 전쟁을 거부하는 ‘완전거부자’였다. 병역거부의 역사를 보면 평화 시기에는 이처럼 모든 전쟁을 거부하는 완전거부자들이 주로 병역거부를 하지만 그 숫자가 많지는 않다. 보통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여러 방식으로 군입대에 대한 선택이 나눌 수밖에 없다. 역설적으로 가장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등장하는 때는 전쟁 시기였다.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군대 내에서 특정한 명령이나 부당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병역거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모든 전쟁과 군 입대를 거부하는 완전거부자와 대비해 군대 내에서 특정 명령이나 특정한 상황을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를 ‘선택적 병역거부자’라고 부른다.

제가 이렇게 대통령께 편지를 쓰는 까닭은 이등병인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라크 파병이라는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물론 대통령께서도 적지 않은 고민에

서 그러한 결정을 내리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판단은 우리 군대의 장교는 물론이고 사병들까지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인으로서 그러한 죽음을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무런 명분도 도덕도 없는 제2의 베트남전에 우리의 군대가 파병되어 이라크 국민을 죽이고 또한 죽어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전쟁없는세상, 2014, 53)

2003년 현역 이등병 강철민은 신병 휴가 때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강철민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라크 파병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오태양과 같은 평화주의자는 아니었다.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면 병역 의무가 없더라도 자진 입대하여 총 들고 나라를 지키겠지만, 외국을 침략하는 전쟁에 동참하는 것은 받아 들일 수 없는 사람이었다.

비록 자신이 직접 파병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당한 전쟁의 침략군의 일원이기를 거부한 것이었다. 완전거부자들의 병역거부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전쟁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선언이라면, 강철민의 병역거부는 현재 일어나는 전쟁을 중단시키고자 하는 직접행동이였다. 강철민의 직접행동은 병역거부가 개인의 양심과 삶에 국한하는 실천일 뿐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중단시키는 사회적인 의미의 실천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강철민 이전에도 현역 군인이 한국군의 참전에 반대해 병역거부를 한 사례가 있다. 한국군 병사 김이석과 김동희는 베트남 전쟁 차출 명령이 떨어지자 각기 탈영을 해 일본으로 밀항을 시도했다.(권혁태, 2014) 하지만 이들은 전쟁 반대의 의미를 지녔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행동했을 뿐 강철민처럼 공개적인 형태로 전쟁 반대 운동을 확산시키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이길준의 병역거부 소견서 나는 저항한다!

저는 지금 현역 의경으로 복무를 하다 특별외박을 나와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병역거부를 하겠다고 선언하려 합니다. 분명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결정이 야기할 수많은 고통과 상처들, 특히 제 부모님이 겪으실 일을 수없이 생각했고, 그것들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과정은 괴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저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꽤나 거창하게 들리죠. 하지만 제가 하려는 일은 엄청난 대의를 가진 일이 아닙니다. 단지 삶에 있어서 제 목소리를 가지고, 저의 삶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렇습니다. 세계 있어 저항은 주체성을 가지고 제 삶을 만들어어나가는 일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지니고 자신의 삶의 색채를 더해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과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것은 누구에게든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억압하는 것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에 대해 저항하는 것은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지금껏 억압들에 대해 순응하며 살아온 제 삶을 내던지며 저항을 통해 제 삶을 찾아가야 한다고 느낍니다.

저는 지난 2월, 지원을 통해 의무경찰로 입대했습니다. 이런 결정에 대해 수많은 비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의 제 결정과 관련해서 말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징병제에 회의적인 입장이었지만, 제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복무하게 된다면 저나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일에 복무하고 싶었습니다. 고민 끝에 선택한 길은 의무경찰이었죠. 제 생각과는 많이 달랐고, 그에 대해 무책임한 선택이란 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퇴색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경으로 있는 동안 제가 느낀 건, 언제나 우리는 권력에 의해 원치않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몇달 간의 촛불집회를 진압대원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촛불을 들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미국과의 소고기 재협상 요구, 공기업·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경쟁으로 내모는 교육 제도에 대한 반대 같은 것들이 이런 목소리로 느껴지더군요. 권력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으로 말이에요.

촛불집회에서 사람들은 하나의 주제로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모였고, 여러 모습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비장한 투쟁이 아닌 자신과 공동체의 삶을 위한 즐거운 축제였습니다. 하지만 삶을 위협할 수 있는 권력에게는 소통의 의지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니다. 오히려 제 또래의 젊은이들과 그들과 같은 시대를 사는 시민들을 적개심을 가지고 맞붙어야하는 상황으로 내몰았죠. 저와 같은 친구들이 특별히 악랄해서 시민들을 적으로 여기고 진압해야 했을까요? 모두가 저처럼 가족과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위해 2년이라는 시간을 복무하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누가 집회를 참여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들어갔겠어요. 하지만 권력은 시위대는 적이 아니라고 명심하라는 위선적인 말을 하며 실질적으로는 이미 우리에게 시민들을 적으로 상정하게 하고 언제나 공격할 태세를 갖추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힘 앞에서 개인은 무력해집니다. 방패를 들고 시민들 앞에 설 때, 폭력을 가하게 될 때, 폭력을 유지시키는 일을 할 때, 저는 감히 그런 명령을 거부할 생각을 못하고 제게 주어지는 상처를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지로 내모는 권력은 어디 숨었는지 보이지도 않고, 암묵적으로 그저 적으로 상정된 시위대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며 상처를 덮고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이런 날이 반복되고, 저는 제 인간성이 하얗게 타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압작전에 동원될 때도, 기약 없이 골목길을 지키고 있어야 할 때도, 시민들의 야유와 항의를 받을 때에도 아무 말 못하고 명령에 따라야 하는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근무시간이 늘어나고 육체적으로 고통이 따르는 건 감수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제가 하는 일이 대체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인가를 생각하면 더 괴로워지더군요. 누구도 그런 것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위해서라면 갓 스물의 젊은이들이 폭력적인 억압의 도구가 되어도 괜찮은가요? 그런 정당성은 누가 보장해주나요?

힘든 시간 동안 전 일단 어떤 식으로든 도피를 모색했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도피는 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디에 있든 제가 그곳에 남아 있는 한 결국 억압의 구조를 유지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고 그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일일 뿐이다 싶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남은 삶을 주체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금 저를 억압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로 저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대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명령에 순응하고 가해지는 상처를 외면하면 스스로에게 이윤배반적이고 껌테기 뿐인 인간으로 남을 거란 불안도 있었고요.

가해자로서, 피해자로서의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 고민 속에 흐려져가는 삶을 재정립하는 방법은 저항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제 삶을 억압하는 것들에 대해 늘 타협 했을 뿐 자신 있게 저항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느껴지더군요. 이번 기회는 제 삶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느껴졌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겠지만 제가 원하는 저를 찾아간다는 것은 즐겁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걱정하는 것처럼 전 스스로를 어지러운 정국의 희생양이나 순교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분위기를 탄 영웅이 되고 싶은 건 생각도 없어요. 정략적인 이해관계에 휘둘리거나 어떤 이득을 취할 생각도 없고요. 전 단지 스스로에게 인정될 수 있고, 타인과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을 뿐이고, 그런 스스로의 욕망에 충실할 뿐이에요.

비장한 각오의 투쟁을 선언하고 싶진 않군요. 전 저항의 과정은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억압의 조건은 힘겹지만 그에 대해 자신을 찾고 목소리를 내는 과정은 무겁게 받아들일 일만은 아니에요. 저도 노력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억압에 대해 저항해나가는 것도 제 작은 바람입니다.

제가 한 행동을 통해 저는 제 삶의 주인이 되어간다고 느끼고, 아울러 폭력이 강요되고 반복되는 지금의 구조들도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상처를 받을 수많은 젊은이들이 오늘도 고통 속에 밤을 지새우는 일만큼은 이제 그만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끝으로 제 얘기를 듣고 저를 도와주시며 지금도 함께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못난 아들을 위해 상처를 감수하고 이해하고 제 편이 되어주시는, 어려운 결정 내리신 부모님께
다시 한번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7월 27일 일요일
이길준

의경으로 있는 동안 제가 느낀 건, 언제고 우리는 권력에 의해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략) 삶을 위협할 수 있는 권력에게는 소통의 의지가 느껴지지 않았습시다. 오히려 제 또래의 젊은이들과, 그들과 같은 시대를 사는 시민들을, 적개심을 가지고 맞붙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았죠. 저와 같은 친구들이 특별히 악랄해서 시민들을 적으로 여기고 진압해야 했을까요? (중략) 이렇게 보이지 않는 힘 앞에서 개인은 무력해집니다. 방패를 들고 시민들 앞에 설 때, 폭력을 가하게 될 때, 폭력을 유지시키는 일을 할 때, 저는 감히 그런 명령을 거부할 생각을 못하고 제게 주어지는 상처를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없는세상, 2014, 126쪽)

이길준은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당시 의경이었다. 입대하기 전에도 병역거부를 고민하다가 충을 들지 않기 위해 일부러 의경을 지원했는데, 촛불집회 강제진압에 동원되는 것을 거부하며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강철민의 병역거부는 직접 파병 부대에 차출된 것이 아니었다는 측면에서 정치적인 목적의 선언이었다면, 이길준은 병역거부는 자신에게 직접 내려진 명령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정치적이면서도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이었다. 이길준의 선언은 군사주의가 군대에 속한 개인의 양심과 존엄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이때 개인의 선택지로서 병역거부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지는 의미를 보여준다. 적군과 아군, 승리와 패배 같은 이분법만 존재하는 군사주의 세계관에서 시위 진압을 나선 의경에게 시위대는 우리 편이 아닌 이상 굴복시켜야 하는 적군일 뿐이다. 이길준은 병역거부를 함으로써 파괴되어 가는 자신의 양심을 지키는 동시에 이러한 군사주의적 세계관의 근원에 질문을 던진 것이었다.

유민석의 병역거부 소견서

나약하고 유약한 제 안의 여전사는 병역을 거부합니다.

남성은 남성성을 갖는 것이 미덕이며 정상으로 인지되는 세상에서 제 정체성은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의무와 국민으로서의 권리 양자 모두에 언제나 상충되곤 합니다. 그렇게 무방비로 태어나버린 제 존재를 돌이켜보면 단지 태어난 성과 반대의 성역할이 편하고 행복감을 느꼈을 뿐인데, 그 대가치곤 짊어지어야 할 짐이 무겁습니다. 별나라의 외계인을 좋아한 것도 아니고 여기 푸른 지구의 '화성에서 온 남자'를 좋아했을 뿐인데, 때론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초등학생이었던 어린 시절부터 보이스 칼라를 하이톤으로 내질러 보는 순간이 너무나 재미있었고, 어머니의 화장품을 아버지의 것보다 즐겨 바를 때도 그것이 어떤 사회적 금기를 깨는 성질의 것이라고 알기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닥쳐올 어떤 시련과 압제를 예고하는, 이미 열어버린 판도라의 상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제 안의 여성의 욕망으로도 알 수 없을 만큼 너무도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중략)

군입대 전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군대라는 남성화된 공간으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은, 체계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상송 제목처럼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국가와 군대라는 남성화된 거대한 리바이어던은 거스를 수 없는, 그리하여 결국은 승복할 수밖에 없는 근엄하고 숭고한 남신의 아바타 같은 힘으로 다가왔습니다. '철수'와 '영희'같은 신사·숙녀만 존재해야 하는 세상에서 나는 '철수'라는 기득권을 갖고 태어났지만 진정한 남자로 거듭 태어나는 것을 거부했기에, 남성의 신체를 하고있는 나에게서 주인공 철수의 역할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게으르고, 뒤떨어지고, 어리버리해서, 그러기에 싸가지 없는' 특이하고 이상한 '영희같은 놈'이라는, 참으로 비통하고 원통하게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때문에 진짜 철수인척 하지 않으면 '철수들'의 무리에 끼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다소곳하고 다정다감한 부분을 '레이디 퍼스트'처럼 배려해주시기를 누군가에게 하소연이라도 하는 날에는, 그 즉시 퇴출의 대상이 되거나 보안의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속앓이를 하면서도 그렇게 언제 어디서든 숨기지 않으면 쫓겨야 했습니다.

(중략)

대학에서 여성주의 세미나를 통해 에코페미니즘(생태여성주의)라는 학문을 발견하였을 때는, 마치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태주의와 여성주의가 접속된 에코페미니즘은 소위 버려지고, 나약하고, 쓸모 없다고 생각되는 모든 '여성적인 것들'에게 자매애를 부여하는 학문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스스로 부끄럽게 느껴와서 받아들이기가 거북했던, 그러나 내 안에 이미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었다고 생각하는 여성성을 하다 못 해 집계벌레나 거미 따위의 보잘것없다고 규정되어진 못생김 모두에게서 발견해 가는 에코페미니즘이 제시하는 세상은 단숨에 제 모든 것을 휘감았습니다. 에코페미니즘은 학문이기보다는 운동강령에 가깝기 때문에, 설득적이기는 하지만 논증적이지는 못한, 이론보다는 담론이라는 이성적인 비판은 전혀 감성적으로 들리지 않았고, 자연 파괴와 생태계 교란이라는 침몰해가는 거대한 타이타

낙호로부터 나와 인류를 구원해줄 구명선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 후 이런 에코 페미니즘은 저의 신념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관계 속에 제각각 살리고 하는 생명체들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은 세계 모든 중심주의를 온생명 전체로까지 확장시켜주는 영성을 느끼게 주었으며, 또한 휴머니즘을 가장한 인간중심주의의 이율배반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모험감과 죄책감을 가지며 밀어내려 했던 강요받던 공격적인 남성성은 남성과 여성, 또한 우리 인간을 둘러싼 자연환경 양쪽 모두를 충분히 황폐화시킬 수 있기에 나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도, 또한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불필요한 것이라는 신념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거세되어야 할 것은 단지 그냥 몸에 불과한 나의 생물학적인 남성의 상징이나 혹은 ‘사내자식이 계집에 같은’ 나의 여성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유독 미화되고 가치 절상된, 그러나 사회문화를 가로질러 정상으로 인식되어져 지배하고 있는 정서인 ‘남성성’이라는 판단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겉이 많고 어리버리한 제 심약함이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사유로는 어찌 보면 미약할 지도 모릅니다. 저는 페미니즘 운동을 위하여 플레이 보이지에 잠입한 채 바니걸로 살았던 글로리아 스타이넵이나, 일년 반동안이나 남장을 한 채 남성들의 사회를 비판적으로 체험한 빈센트는 될 수 없겠지만, 남성적인 가치들을 강요하는 군대에서의 경험을 통해 반작용적으로 깨닫게 된 섬세한 정체성과 내 안의, 또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성성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면, 겉이 많고 남을 죽이는 연습을 해야하는 시뮬레이션의 군사훈련조차 별것 손부터 떨리는, 아직은 사람들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부류의 ‘사내자식이 계집에같다’는 그러한 ‘성적 소수자’로서 바라보았던 남성화된 병영문화의 병폐와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남성성을 재생산하는, 군대라는 ‘진짜 남자’가 되기 위한 통과의례를 거부할까 합니다.

(중략)

남자에게는 남성화된 남성성만을, 여성에게는 또한 젠더적 여성성만을 강요하는 국가와 사회의 성별 구획짓기식 성교육은 남성과 여성 양자 모두에게 착종과 반목과 거부감과 반감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비단 저만이 아닌 인간의 다양하고 다채로운 섹슈얼리티, 아니마와 아니무스, 기질, 특질, 감수성들을 발현시킬 수 없게 하는 억압기제로 작용할 뿐입니다.

그러한 젠더 구획짓기를 반대하는 페미니스트이자, 젠더 구획짓기의 피안에 있는 게이인 저의 신념은 오로지 천편일률적이고 획일화된 남성성을 훈육, 교육 시킴과 동시에 재사회화 시키는 군대를 거부하려 합니다.

“여성은 두 개의 유방으로 태어난다. 하나는 페미니즘이며 또 다른 하나는 베지테리안리즘이다.” 라는 생태여성주의자인 프루다 시즈카의 명제처럼 제 성 정체성이 오버랩한 여성은 마냥 희생해야 하는 약자로서의 여성이 아닌, 인류를 먹여 살리는 젖줄을 지닌 채 상생과 공생의 힘을 가진 아마존 밀림 숲의 여전사같은 여성이었습니다. 때문에 ‘남자도 아니다’, 혹은 ‘남자답지 못하다’는 조롱에, 외유내강과 정중동의 힘을 가진 제 안의 여전사는 저항했습니다.

‘성적 소수자’인 제가 소수자적 감수성을 가지고 바라본 세상은 오히려 남성우월주의와 권위주의에 의해 스스로야말로 결과 속이 뒤집힌 ‘네모난 동그라미’같은 세상이었습니다. 여성을 성

적 관심의 대상이 아닌 동일한 인간으로 보기에 그들의 고통과 고통할 수 있었으며 그 외에 남성성을 획득하지 못했기에 나약하고 심약하다고 배척당하는 모든 소수자, 타자화된 것들에 대해서 조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매애’보다는 ‘전우애’를, ‘상생’과 ‘공생’보다는 상멸과 공멸의 결말을 가진 군사주의와 남성 우월주의적인 군대를, 제 안의 겁 많고 어리버리한 여전사는 온몸으로 거부합니다.

*유민석의 소견서는 분량상 전부를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전문보기 http://peacearchive.net/xc/s_3/2640

유민석의 병역거부 선언문, 남성성을 해체하다

유민석은 이길준에 앞서 2005년 현역 전경으로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유민석은 비록 현역 전경 신분으로 병역거부를 선언했지만 이길준과는 다르게 부당한 명령이나 특별한 상황을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 유민석은 군생활의 군사주의와 남성성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더 깊게 고민할 수 있었고, 그를 바탕으로 여성성을 비하하고 남성성만을 강요하는 병역을 거부한다.

겁이 많고 어리버리한 제 심약함이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의 사유로는 어찌 보면 미약할지도 모릅니다. (중략) 남성적인 가치들을 강요하는 군대에서의 경험을 통해 반작용적으로 깨닫게 된 섬세한 정체성과 내 안의, 또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성성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면, 겁이 많고 남을 죽이는 연습을 해야 하는 시뮬레이션의 군사훈련조차 별척 손부터 떨리는, 아직은 사람들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부류의 ‘사내자식이 계집애 같다’는 그러한 ‘성적 소수자’로서 바라보았던 남성화된 병영문화의 병폐와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남성성을 재생산하는, 군대라는 ‘진짜 남자’가 되기 위한 통과의례를 거부할까 합니다.(전쟁없는세상, 2014, 97)

오테양 이후 초기 병역거부자들은 대부분 학생운동을 경험했거나 시민사회운동 활동가인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군사적인 수단으로 평화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했

고, 군사력에 의존하는 평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병역을 거부했다. 이들의 병역 거부는 분명 군사주의에 대한 저항이었는데, 그때의 군사주의는 강한 군사력만이 평화를 지킨다는 군사안보이데올로기에 가까웠다. 초기 병역거부자들은 반대자들에게는 겁쟁이 혹은 비겁자라고 불렸지만 병역거부를 지지하는 이들에게는 감옥을 감내하는 강한 신념의 소유자 혹은 불굴의 의지를 가진 젊은이로 인식되기도 했다. 강한 힘에 의한 평화, 즉 ‘남성 전쟁 영웅’을 비판하며 병역거부를 했지만, 한편에서는 병역거부자들이 전쟁을 거부한 또 다른 ‘남성 영웅’이 된 것이다. 실제로 초기 병역거부자들의 병역거부 선언문(소견서)를 보면 결연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반면 유민석의 소견서는 자신의 신념이 미약한 것은 아닌지 불안해한다. 때문에 확신에 찬 목소리가 아니라 흔들리고 떨리는, 그렇지만 회피하지 않는 목소리다. 겁쟁이라는 비난에 겁쟁이가 아니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겁쟁이인 게 왜 나쁘냐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앞선 병역거부자들의 반군사주의가 전쟁과 외교와 정치 같은 남성화된 평화 담론 속에서 이루어진 것과 다르게 유민석의 반군사주의는 군사주의가 어떻게 젠더화되어 있는지, 남성성과 여성성을 어떻게 구분하고 특징짓는지, 그리고 그게 자신의 삶과 정체성에 어떤 혼란과 어려움을 가져왔는지를 살펴본다. 감옥에 가는 탄압받는 남성 평화 영웅으로서 병역거부자가 아니라, 자신 안의 나약함과 두려움, 여성성을 마주하고 그것을 긍정하는 새로운 병역거부자의 등장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유민석의 병역거부 선언 이후로 병역거부자들의 병역거부 사유는 무척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페미니스트로서 젠더 이분법을 강화하는 군대를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부터 거창한 정치적 대의와는 상관없이 군대의 폭력이 무서워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예전이라면 사회에서 병역기피자로 불렸을 존재들이 병역거부의 언어로 호명되기 시작했다. 군사주의에 의해 비가시화 되어 있던 존재의 발견은 병역거부 운동의 목표가 병역거부자들의 시민권 획득이 아니라, 시민과 비국민을 나누는 경계를 허무는 것에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숲이아의 병역거부 선언문, 병역거부의 자격을 질문하다

병역거부 운동 안에서는 늘 젠더를 둘러싼 갈등과 긴장이 형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숲이아의 병역거부 선언

2018년 8월 30일, 저는 여기 평화살롱 레드박스에서 병역거부를 선언합니다.

(전략)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병역거부와 관련한 중요한 판결이 나왔어요.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현 병역법은 합헌이지만 대체복무제가 없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용석이 현재에서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오고 나서 페이스북에 쓴 글을 봤어요. 기자가 병역거부 운동과 관련된 인터뷰 대상을 찾을 때 병역거부팀을 오랫동안 맡아온 여옥을 추천하면 꼭 병역거부자를 찾는다라는 내용을 올렸거든요. 여성은 병역거부 운동의 행위자임에도 불구하고 발언권이 축소당하기도 해요. 가부장제는 남성언어에 권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작용하죠. 여옥에게 전화를 해서 인터뷰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뷰할 대상을 소개시켜 달라고 했던 기사도 있다고 해요. 그 기사 사례는 가부장제가 작동하는 방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부장제에서 비남성에게 언어는 없죠.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평화 운동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런 작동 방식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무슨 기자회견이든, 강연이든 발언자 자리는 모조리 남성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돼요. 아니면 구색맞추기로 한 명을 끼워 넣던지요. 부끄러운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평화스럽지도, 정의롭지도 않아 보입니다. 평화라는 이름을 붙이고 행사를 하려면 성평등에 대한 고려와 젠더관점으로 성비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필수인 것 같아요. 「병역거부」책에서 앞부분에 신시아 코번이 쓴 글에서 젠더관점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밝히고 있어요. (책을 아직 안보신 분들은 꼭 사서 신시아 코번이 뭐라고 이야기 하는지 읽어보세요.)

사실 저는 ‘만약 내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2가 아니라 1이었다면 입영통지서가 날아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여러 번 던져봤어요. 제가 남성의 몸으로 태어나서 주민번호 1번을 부여받았다면 병역거부를 택하고 감옥에 가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의 병역거부 선언이 심각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뭇 진지하게 병역거부 선언을 하려는 저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에요.

한국에서 흔히들 하는 말이 있죠.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 남자지”

군대를 다녀와야 진정한 남성으로 추앙받잖아요. 한국에서 군대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비틀린 남성성을 재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것 같아요. 상명하복이라는 위계적 체제에 순응하도록 훈련을 하고 위계질서에 정상성을 부여하지요. 여성, 장애인, 이주민... 비남성은 비정상적으로 취급 받고요. 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1인 사람만 징병대상자로 삼는다는 점에서 성별이 분별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작동을 해요. 애초에 주민등록번호를 1과 2로 나누어 간성이나 다양한 성별정체성 스펙트럼 위에 있는 사람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 주민등록체제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성별이분법적 주민등록 시스템에 기반해서 군대가 돌아가지만 한편으로 성별이분법 구조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요. 가부장-군사주의-국가 시스템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 하나가 성별이분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중략)

저는 논바이너리 젠더퀴어로 스스로를 정체화 하고 있어요. 너무 쉽게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적인 틀에 갇히기도 하지만, 이분법을 벗어나 이분법을 거부하며 사유하고 행동하고 살고있는 사람이에요. 젠더가 흐르듯 변한다는 의미의 젠더플렉스이거나 역시 젠더가 유동적인 젠더플루이드 일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성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저의 신체와 제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범주에서 트랜스젠더인거죠. (중략)

경계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제 몸은 경계선이고 제 몸이 전쟁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삭발을 하고 다니다보니 종종 “여자야 남자야?”하는 외침을 듣는다던지, 누군가 위 아래로 뚫어져라 쳐다본다던지 하는 경험을 많이 해요. 저는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폭력이나 차별로 피해를 입기도 하고, 쿼어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피해나 차별을 입기도 하죠. 여성이자 쿼어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도 있고요.

얼마전 안희정 무죄판결이 나온걸 보고 사법부에서 여성들에게 “당신들은 국민이 아니다”라고 선포한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버지니아 올프가 이야기 했죠. “여성인 나에게 조국은 없다”라고. 원래 비국민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사법부에서 이렇게 명백하게 확인을 시켜줄 줄은 몰랐습니다. 저의 비국민성과 제 몸이 전쟁터라는 걸 깨닫고 나니 이게 병역거부वाद도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제 몸이 전쟁터인데, 더 큰 전쟁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습니다.

군대가 (젠더퀴어인 저를 포함한) 여성을 보호하나요?

전쟁이 일어나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아직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걸까요?(중략)

저는 저의 이야기를 들려 드렸습니다. 오늘 병역거부 선언이 저만의 선언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다양한 주체들의 병역거부 선언이 이어지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게됩니다. 여성들의 병역거부 선언문을 새로 쓰는 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병역거부선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어서 하시면 어떨까요?

*쉴이의 소견서는 분량상 전부를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전문보기 <http://www.withoutwar.org/?p=14675>

국가에서 입영영장은 남성에게 집중된다. 병역거부를 할 수 있는 자는 감옥에 감으로써 운동의 중심이 되고, 애초에 병역거부를 할 수조차 없는 이들은 운동의 주변부에서 평화 영웅을 돕거나 지지하는 역할만을 요구 받기 쉽다. 평화활동가들은 이러한 긴장과 갈등을 마주하며 성별 구조가 작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성 평화활동가들 중 일부는 병역거부 운동 내의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상징적인 ‘여성 병역거부 선언’을 해오고 있다. 한국의 병역거부 운동 또

한 이러한 한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2018년 평화살롱 레드 북스의 책방지기이자 평화활동가인 숲이아가 처음으로 지정 성별 여성으로서 병역거부 선언을 했다.

얼마 전 안희정 무죄판결이 나온걸 보고 사법부에서 여성들에게 “당신들은 국민이 아니다”라고 선포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버지니아 울프가 이야기 했죠. “여성인 나에게 조국은 없다”라고. 원래 비국민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사법부에서 이렇게 명백하게 확인을 시켜줄 줄은 몰랐습니다. 저의 비국민성과 제 몸이 전쟁터라는 걸 깨닫고 나니 이게 병역거부वाद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제 몸이 전쟁터인데, 더 큰 전쟁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습니다. (중략) 군사주의 사회에서 지정성별 여성인 제가 병역거부를 하는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원래 비국민으로 취급받는 존재가 국가의 체제에 저항하겠다는 선언을 한다는 것. 가진 것이 많은 이들보다 없는 자들이 저항하고 선언하는 게 더 무서운 게 아니겠습니까. 잃을게 없으니까요. (「숲이아의 병역거부 선언문」 <http://www.withoutwar.org/?p=14675>)

숲이아의 병역거부 선언은 여성(비국민)의 시선으로 바라본 전쟁과 폭력에 대한 사유를 보여준다. 전통적인 의미의 안보에서는 진보 세력이든 보수 세력이든 안보의 기본 단위를 국민국가로 설정한다. 반면 숲이아의 병역거부 선언은 국가 밖에서 안보를 사유한다. 비국민성과 자신의 몸이 이미 다양한 폭력이 투쟁하고 있는 전쟁터임을 자각한다. 입영영장 또한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민 국가의 시스템 내에서만 작동하는 것들이다. 즉 우리가 안보를 국가의 테두리 밖에서 사유한다면 병역거부 또한 입영영장 거부에만 머무르지 않을 수 있다. 폭력과 전쟁에 대한 폭넓은 저항과 불복종을 모두 병역거부와 연결지을 수 있다. 그럴

때 병역거부자의 성별은 남성으로 상징되지 않는다. 누구나 자신의 삶 속에서 저마다의 전쟁터에서 폭력과 전쟁에 동참할 것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숲이아의 병역거부 선언은 한 해 뒤 강정마을에서 활동하는 여성 평화활동가 3인의 병역거부 선언으로 이어졌다. 강정마을 여성 평화활동가들은 병역거부 선언을 통해 여성에게, 이주민에게 전쟁과 군대가 무엇인지를 질문한다. 국민 국가의 밖에서 안보를 사유하는 힘은 질문으로 시작된다.

군사주의에 대한 사유의 흐름을 보여주다

병역거부 선언은 다른 사회운동과 마찬가지로 선언이 나오던 당시의 실천과 사유의 한계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오태양을 비롯한 초기 병역거부자들의 병역거부 선언에는 군대 간 이들의 선택도 존중한다는 내용 혹은 대체복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보내지 않음으로서 시민권을 회복시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의 발현이기도 했지만, 운동 초창기 병역거부에 대한 심한 반감을 고려한 전략적인 화법이기도 했다. 또한 초기 병역거부자들의 선언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군사주의에 대한 저항을 국가 간 전쟁 행위에 동참하지 않는 것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 그마저도 병영 국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집단적으로 군사주의를 정면 비판했다는 의미를 가지지만, 동시에 국민 국가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도 지니고 있다.

이후 현역 군인, 성소수자, 페미니스트, 겁쟁이로 병역거부자의 면면이 확대되면서 병역거부자들의 선언도 군사주의에 대한 사유도 달라진다. 군사주의가 어떻게 가부장제와 성별 이분법에 서로 영향을 끼치고 강화시켜 주면 작동하는지, 군사주의에 맞

서는 병역거부 운동 내부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은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2020년 10월 26일부터 대체복무제가 시작되면서 병역거부 운동은 새로운 국면을 마주했다. 물론 대체복무제 시작으로 강제적인 징병제도를 통해 유지되어온 군사주의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겉모습이 달라질 것이 높다. 새로운 모습의 군사주의는 과거보다 훨씬 세련된 모습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병역거부자 운동 내부의 관계와 역학도 달라질 것이다. 앞으로의 병역거부자들은 지금까지의 병역거부자들과는 또 다른 이들이 등장할 것이고, 병역거부자들이 마주할 상황도 예전과는 분명 다를 것이다.

참고문헌

전쟁없는 세상, 『우리는 군대를 거부한다』, 포도밭출판사, 2014.
권혁태, 「베트남 파병을 '거부'한 두 한국군 병사 김이석과 김동희」, 『황해문화』 84, 2014.